

野 “주호영 몸수색’ 의도적…與, 대통령 사과 요구해야”

“제1야당 원내대표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 당해”

“시정연설?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

안철수도 “국회에 대한 존중도 예의도 없었다”

아낀 인사들이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신체 수색이 이뤄져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시정연설 내용 자체에 관해서도 “희망고문”, “자화자찬”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꼬집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세 차례 강조하셨는데, 자신의 필요에 의해 갖다쓰는 미사여구”라며 “대통령 환담에 공식 초청된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것도 국회에서 몸 수색으로 쫓아내는 정권이 무슨 뜻으로 협치를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대한민국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청와대로부터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했다”며 “민주당에 묻겠다. 국회의 주인이 누구냐. 오만과 권력에 취한 손님의 행패를 덮고 넘어가자는 것이냐. 민주당이 나서서 대통령의 사과와 책임자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형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안 하시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말만 한 연설 아닌가”라며 “현안은 비켜가거나 구름 위에 있는 듯한 발언으로 일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일자리, 부동산, 탈원전 등 실패한 정책들에 대한 반성은 없고 대신에 낙관적인, 밥 먹으면 배부른 것이라는 사실 굉장히 한가하게 들리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며 “미래 세대의 돈을 담겨쓰는 재정 만능주의에 빠져버린 것 같아서 우려도 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부동산의 지금 현상이 난리가 아니냐”며 “홍남기 경제부총리처럼 전세난민도 생기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상황에서 기다리면 좋아질 것이라는 이런 낙관적인 것은 위트가 아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희망고문”이라고 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듣다가 도저히 듣기가 좀 거북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나왔다. 시종일관 자화자찬했다”며 “코로나 방역이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K-방역이니 하면서 자화자찬하더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까운 대만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거의 안 나온다. 거의 제로(zero·영)다. 뉴질랜드도 마찬가지고 태국도 한 자리 숫자다. 베트남도 거의 안 나온다”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계속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가장 선방하는 나라라는 대통령은 좀 정지해야 되지 않겠냐”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은 “국민들은 집값 올라서 난리고, 전세값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일자리 없어서 지금 해매고 있고, 경제는 폭망해 있고, 중국과 미국, 일본, 또 북한과의 사이에서 안전보장은 어디에 가 있는지 불투명한 상태”며 “오히려 기적적인 성공이라는 자화자찬만 하니 이분이 우리나라 대통령 만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전 환담회 참석 과정에서 이뤄진 청와대 경호처의 주호영 원내대표 신체 수색과 관련해서는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청와대가 아니고 국회의사당, 그중에서도 본청이라는 데는 문제가 있다. 여기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과거 정권의 매뉴얼에 따랐다고 하는데, 뭐든지 문제만 생기면 전 정권의 책임이고, 예전 사람 책임이라고 한다”며 “경호원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모욕적인 행동 아니냐. 매우 의도적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시정연설에 앞서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환담을 나누고 있는 한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와 주호영 원내대표 의자리가 비어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환담자리에 참석하려 했지만 청와대 경호처측의 ‘몸수색’에 반발해 참석하지 않았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또한 이번 논란에 “손님이 남의 집에 와서 주인 몸수색한 꼴이다. 국회에 대한 존중도 야당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사례를 보면, 과잉 경호는 강한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약한 정당성의 증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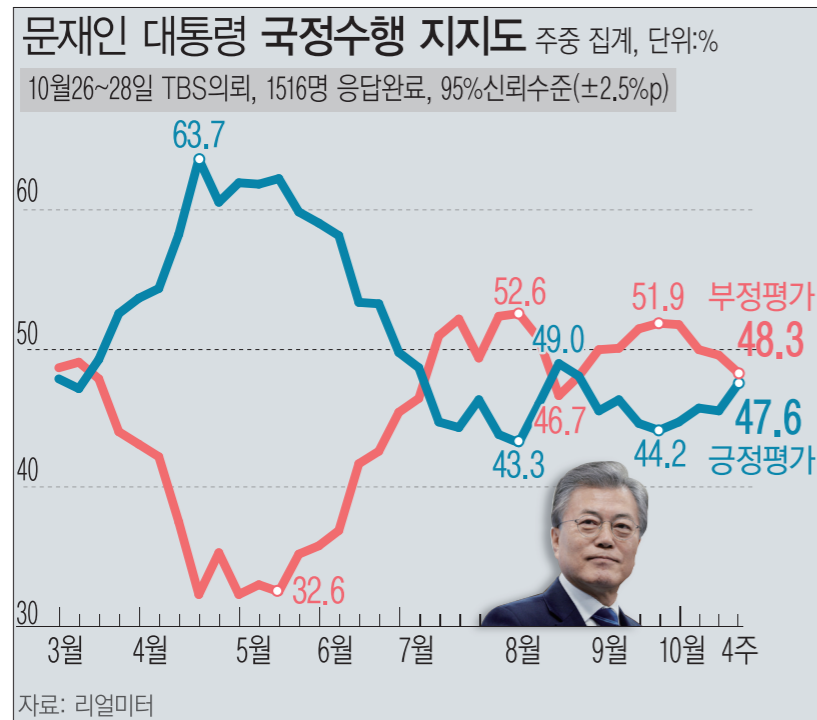
대통령 경호한답시고 야당 원내대표 몸까지 수색해야 할 정도라면, 문재인 정권이 스스로에게 얼마나 자신이 없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이런 논란을 일으킬 힘과 정신이 있다면 어렵고 힘든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돌보는 데 쓰시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文 대통령 · 여야 지지율 모두 상승...민주당 37% · 국민의힘 28%

文 지지율 2%p 올라 47.6%...공·부정 격차 최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 민주당·국민의힘 지지도가 모두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지난 7일부터 시작돼 마무리 국면에 들어선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 대한 평가가 진영별로 양극단으로 이뤄졌다는 분석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실시한 10월3주차(26일~28일) 주중집계 결과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0%포인트 오른 47.6%(매우 잘함 24.2%, 잘하는 편 23.4%)를 기록했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1.3%포인트 내린 48.3%(매우 잘못함 33.5%, 잘못하는 편 14.8%)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0.6%포인트 감소한 4.2%다.

공·부정 평가 차이는 0.7%포인트로 9월 1주차 이후 최소 격차를 보였다.

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부산·울산·경남(5.9%p ↑), 광주·전라(4.4%p ↑)올랐다.

또한 열린민주당 지지층(9.3%p ↑), 정의당 지지층(9.2%p ↑), 진보층(3.1%p ↑)에서 올랐다.

대구·경북(7.2%p ↑)과 보수층(2.3%p ↑)에서는 부정평가가 상승했다.

지역과 정치성향별 지지율 변화를 고려한다면 이번 국정감사의 평가 양극단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주는 지표라는 게 리얼미터의 설명이기도 하다.

실제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진보층의 긍정평가는 75.3%이고, 보수층의 부정평가는 77.8%로 조사됐다.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 대비해서 1.6% 포인트 오른 36.7%를 기록했다.

광주·전라(6.6%p ↑)와 부산·울산·경남(6.2%p ↑)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전주 보다 0.3%포인트 소폭 상승한 27.6%로 집계됐다.

대구·경북(5.0%p ↑)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리얼미터 관계자는 “청와대와 여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모두 상승했다.”

또한, 국정감사가 ‘여당의 무덤, 야당의 시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여당의 ‘판정승’이라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열린민주당은 0.5%포인트 내린 6.6%, 국민의당은 0.5%포인트 하락한 6.3%로 조사됐다.

정의당은 0.4%포인트 오른 5.0%, 기본소득당은 전주와 같은 0.8%, 시대전환은 0.1%포인트 하락한 0.7%로 집계됐다.

기타정당 지지층은 0.4%포인트 오른 2.1%, 무당층은 0.8%포인트 내린 14.2%였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80%)·유선(20%) 병행하여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해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됐다.

18세 이상 유권자 3만4928명에게 통화를 시도한 결과 최종 1516명이 응답을 완료하여 4.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뉴스스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